

#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1-3】

2011. 7. 4.

## 중동 반정부 시위의 중앙아시아로의 확산 가능성

### 목 차

I. 들어가며 .....	1
II. 중앙아시아 국가별 정치현황 .....	1
III. 중앙아 역내 반정부시위 확산 가능성 ...	6



- 최근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민주화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정치·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될지의 여부가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치동향, MENA 지역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해 본 후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내 반정부 시위 확산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함.

## I. 들어가며

-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의 반정부 시위는 이집트, 리비아, 바레인, 예멘, 시리아 등지로 확산되었으며, 튀니지의 벤 알리 대통령과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으로 이어졌음.
- MENA 지역의 민주화 열풍이 현재까지도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MENA 지역과 유사하게 극심한 빈부격차 문제를 겪고 있으며 장기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로 이러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될지의 여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음.
- 2011년 4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Baku)에서 일함 알리에프(I. Aliyev) 대통령의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추가적으로 시위가 확산되지는 않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sup>1)</sup> 현황을 정치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MENA 지역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해 본 후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내 반정부 시위 확산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함.

1) 중앙아시아 지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아제르바이잔 등 코카서스 지역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음.



## Ⅱ. 중앙아시아 국가별 정치현황

### 1. 중앙아시아 정치체제 개요

- 1991년 구소련 해체 이후 형성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체제는 대통령중심제이며, 6개국 중 4개국(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이 8년 이상 장기집권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의 알리에프(I. Aliyev) 현 대통령은 1993년 이후 아제르바이잔을 철권통치해 온 부친 헤이다르 알리에프(Heydar Aliyev) 전 대통령이 2003년 사망한 이후 대통령직을 세습함.
-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N. Nazarbayev)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I. Karimov) 대통령은 구소련 해체 이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 타지키스탄의 라몬(I. Rahmon) 대통령 또한 1994년 당선된 이래 3선에 성공해 집권 중임.
- 투르크메니스탄의 베르디무하메도프(G. Berdymukhamedov) 대통령은 2007년 전임자인 니야조프(S. Niyazov) 대통령 사망 이후 정치 엘리트층의 합의에 의해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며 뚜렷한 반대세력 없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음.
- 키르기즈는 2010년 4월 반정부 시위를 통해 2005년부터 집권해 온 바키예프(K. Bakiyev) 대통령을 퇴진시킨 후 로자 오투바예바(R. Otunbayeva)가 과도정부 수반으로 현재까지 국정을 수행 중임. 대선은 2011년 10월 치러질 예정이며 오투바예바는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음.

<표 1>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치체제 현황

국가	국가원수	임기	집권기간	차기대선
아제르바이잔	알리에프	5년	8년	2013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5년	20년	2016
키르기즈	바키예프(오투바예바) <sup>2)</sup>	-	5년	2011
타지키스탄	라몬	7년	17년	2013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sup>3)</sup>	5년	4년	2012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7년	20년	2014

자료: EIU, *Country Report*, 2011.



## 2. 국가별 정치상황

### □ 아제르바이잔

- 2003년 임기를 시작한 알리에프 대통령은 부친으로부터 대통령직을 물려받은 이후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 구조에 대한 장악력은 상당한 것으로 보임.
- 2009년 3월 3선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됨으로써 알리에프 대통령은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 11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인 신아제르바이잔당(New Azerbaijan Party: NAP)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안정적인 장기집권 체제가 지속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상대적으로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동유럽 지역의 석유 수출국보다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사회보장성 지출을 확대하며 경기침체의 영향을 완화시킴에 따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비교적 높은 편임.
- 2010년 12월 이후 최근까지 야당과 이슬람 세력이 주도하는 소규모 반정부 소요사태가 빈발하고 있으나 공권력에 의해 신속히 진압되고 있으며 현 정권에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음.
- 아제르바이잔은 에너지 수출에 기반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해 왔으나 향후 에너지 생산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실질임금 상승이 둔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불안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 카자흐스탄

- 1991년 구소련방으로부터 독립 이후 지난 20년간 장기 집권해 온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두 차례 개헌을 통해 사실상 영구집권의 길을 열었으며, 2011년 4월 실시된 조기대선에서도 90%를 상회하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4선을 이루었음. 또한 2007년 8월 실시된 조기총선에서 여당(Nur Otan당)이 88.1%의 득표율로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모든 의석을 독점했음.<sup>4)</sup>

2) 아키예프(A. Akiyev)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4년간 통치했음.

3) 니야조프(S. Niyazov)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2006년 서거 전까지 15년간 통치했음.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보장성 지출을 증대하며 국민 불만을 잠재우고 있으며, 야당과 일부 반대파 정당이 대통령에 대항할 정도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집권세력 내 권력집중 방지를 위해 수시로 개각을 단행하고 언론도 적절히 통제하고 있어 정치적 안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오랜 독재체제에도 불구하고 2008년까지 수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소득 수준 향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편임.
- 세계 경제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다민족(카자흐계, 러시아계 등), 다종교(이슬람 수니파, 러시아 정교 등) 사회지만 민족간 갈등 및 종교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다수의 러시아계를 자극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 키르기즈

- 키르기즈는 2010년 4월 가중된 경제난과 더딘 민주화 과정에 불만을 표출한 반정부 시위가 유혈사태로 확산되었음. 그 결과 바키예프 대통령이 사임하고 과도정부가 구성된 데 이어, 과도정부 수반인 오투바예바가 2010년 7월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
- 2010년 12월에 형성된 3당(Ata-Jurt, Respublika 및 사회민주당(SDPK)) 연립 정부는 정당간 갈등으로 해체 위기에 있음. 3당은 SDPK의 당수인 아탐바예프(A. Atambayev) 총리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 등에 대해 논란을 벌이며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음.
- 2010년 6월에는 민족갈등으로 인한 유혈사태가 발생해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24명에 달하는 등 사회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여전히 키르기즈 남부 지역의 우즈벡 민족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음.

4)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도 2010년 6월 발효된 “국가지도자(leader of the nation) 법”에 의거 여전히 국내외 정책 수립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됨.



## □ 타지키스탄

- 구소련 독립 이후 1994년 대통령에 취임한 라몬 대통령은 1999년 재임 중 대통령 임기를 연장(5→7년)하고 2003년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3연임 금지 헌법을 개정하는 한편, 주요 야당 당수들을 투옥하여 야당세력을 약화시키고 시민 단체 및 언론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장기독재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음.
- 2006년 11월 대선에서 3선에 성공하여 2013년까지 통치할 예정이며 친정부 세력 결집 등으로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 타지키스탄은 높은 실업률 및 2007~08년 대비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액 감소 등으로 가중된 경제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사회불안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 투르크메니스탄

- 2007년 2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전임 부총리이자 보건부 장관이었던 베르디무하메도프가 의회(Khalk Maslakhaty) 및 엘리트 집단의 절대적인 지지와 높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전임 대통령 니야조프(S. Niyazov)와 유사한 대통령 중심의 독재정치를 지속하고 있음.
- 니야조프 전 대통령의 독재정권이 15년간 지속되었고, 베르디무하메도프 현 대통령 또한 유사한 형태의 통치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저항세력이 없고 국민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불안사태가 야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 우즈베키스탄

- 1991년 이후 대통령으로 집권 중인 카리모프(I. Karimov) 대통령이 2007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88%의 득표율로 7년 임기의 대통령직 연임에 성공해 당분간 1인 독재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1995년 대선, 2000년 대선, 2002년 대통령 임기 연장(5년→7년)을 위한 국민 투표 등이 심각한 부정선거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통치체제는 공고해졌으며, 가스 수출을 통한 안정적인 외화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나



금융개혁, 유연한 통화정책 도입, 외환 통제 및 관세 장벽 완화 등의 개혁 성과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우즈베키스탄은 폐쇄경제 체제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고 임금 인상, 복지지출 확대 등 재정지출을 증가하며 경제난으로 인한 국민 불만을 잠재우고 있음.

### Ⅲ. 중앙아 역내 반정부시위 확산 가능성

#### 1. MENA 지역과의 공통점

##### □ 장기집권 체제 지속

- 최근 반정부시위 열풍이 거센 MENA 지역과 중앙아시아의 공통점 중 하나는 대부분 국가에서 장기집권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임.
  - MENA 지역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왕정 국가에서는 왕권이 국왕 일가에 세습되고 있고, 독특한 인민직접참여제로 운영되고 있던 리비아에서도 최고지도자 카다피가 임기 없이 42년간 집권했음.
  - 대통령중심제 국가들도 임기 연장이나 불법 선거 등을 통해 장기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예멘의 살레 대통령이 33년간 집권하고 있는 등 레바논을 제외한 대통령중심제 국가 원수의 평균 집권기간이 22년에 달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지역도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이 1991년 구소연방으로부터 독립 이후 현재까지 20년간 집권하는 등 장기집권 체제가 지속되고 있음. 타지키스탄의 라몬 대통령이 현재까지 17년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의 니야조프와 키르기즈의 아카예프 전 대통령도 각각 16년, 14년 집권한 바 있음.





-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시 러시아, 미국 등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온적인 대응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음.
- 이 지역은 소비에트 연방 시절부터 러시아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으며 러시아의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친러 정권이 집권하고 있어 러시아는 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대외정책 목표 중 하나임.
- 미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을 위한 요충지역으로 간주하며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 유지를 희망하고 있음.
- \* 유라시아 지역의 심장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오랜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란, 미국이 전쟁을 수행 중인 아프가니스탄과 그 이웃인 파키스탄과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페르시아만, 중동지역, 러시아 및 중국과 인접해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도 강대국들이 이 지역의 현상 유지를 희망하는 이유임. 유럽은 카스피해 지역을 주요 석유공급 원천으로 여기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지속적인 자원외교를 추진해 온 결과 최근 결실을 맺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원유, 천연가스 등의 공급을 위해 이 지역의 안정 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표 3> 중앙아시아 원유·천연가스 자원 현황(2009년 말 기준)

구 분	원유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억 배럴)	비중(%)	확인매장량 (조m <sup>3</sup> )	비중(%)
아제르바이잔	70	0.5	1.31	0.7
카자흐스탄	398	3.0	1.82	1.0
투르크메니스탄	6	-	8.1	4.3
우즈베키스탄	6	-	1.58	0.9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0.



## 2. MENA 지역과의 차이점

### □ 정권에 영향력을 보유한 반대세력 미약

- 튀니지, 이집트 등 대부분 아랍권 국가들의 경우 군부가 정권의 정당성 확보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정정불안이 발생할 경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 결과 많은 아랍권 국가에서 군부가 독재정권을 유지해 왔으나 집권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경우 자율성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반면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우 군부의 영향력은 크지 않으며 현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집단은 과거 구소련 시절에 유래한 정보, 안보기구들임. 이러한 기구들은 독재정권의 수호자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으며, 통치자들의 친위세력이 장악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기 힘든 구조임.
- 특히 중앙아시아 통치자들은 야당세력을 철저히 붕괴시켜 반정부시위가 발생하더라도 MENA 지역과는 달리 이를 조직적으로 이끌 반대세력이 미약한 상황이어서 당장의 변혁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sup>5)</sup>

### □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도

-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에너지 수출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고도 경제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독재정권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음. 2010년에 유가 상승, 내수시장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정치적인 불안정을 겪고 있는 키르기즈를 제외하고 빠른 경제 성장세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 실업률의 경우 MENA 지역은 이란이 13.2%, 이집트가 9.7%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국가가 10%에 가까운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앙아시아 지역은 카자흐스탄이 6.1%, 우즈베키스탄이 1.0%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고실업률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은 크지 않음.

5) MENA 지역의 경우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이나 범야권 진영, 리비아의 반정부 부족세력 등이 존재했음.



### 3. 반정부 시위 가능성 분석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비교적 높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단기간 내 MENA 지역의 전철을 따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에너지 수출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대통령들이 최근의 경제 성장을 독재정권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성 지출 증대 및 보조금 지급 등 선심성 정책을 펼치며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고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구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후 국가 형성 과정에서 민주주의 경험이 일천함. 독재정권 하에서도 다양한 정당과 외국의 재정 지원을 받는 각종 시민단체가 존재한 MENA 지역과는 달리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반대세력이 미약한 상황임.
- 중앙아시아 역내 현 상태 유지를 희망하는 미국, EU 등 서방 국가들은 앞으로도 독재정권 유지를 용인할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각각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sup>6)</sup>와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를 이끌며 중앙아시아 지역 내 안정을 유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표 4>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 현황

명칭	결성년도	참가국
중앙아시아 경제연합(CAEU)	1994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중앙아시아 경제공동체(CAEC)	1998년	중앙아시아경제연합 및 타지키스탄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2000년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상하이 협력기구(SCO)	2001년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자료: 필자 작성.

6) CSTO는 2002년 10월에 창설된 구소련 공화국 7개국(러시아,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의 군사방위조직으로 모스크바에 본부를 두고 있음.

